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딸에 대한 가족치료: 어머니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중심으로

박 태 영(송실대학교)

I. 서론

본 연구는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고 3때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2개월 간 정신과에 입원을 한 경험이 있고 2005년에 다시 정신과에 2개월(5월부터 7월까지) 간 입원을 한 경험이 있는 38세인 내담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사례연구이다. 내담자는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어린이 목소리로 들리며, 남들의 비웃음이 색깔별로 나오기도 하며, 성기들이 생각으로 떠오르고, 피부에서 어떤 느낌을 받는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내담자는 생활 속에서 엄마로부터 이중구속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자랐으며, 모든 것을 엄마의 기준에 따라 해야 했으며, 엄마가 뭐든지 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내담자는 엄마와 대화를 하지 못했다. 엄마는 어려서부터 내담자가 사랑스럽지 못하였고, 내담자의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내담자의 정신분열증 증상(환청, 환시, 환각, 환촉)이 생기게 된 원인들과 가족치료로 인하여 이와 같은 증상들이 사라지게 된 요인들을 찾는 데 있다.

II. 치료에 대한 이론적 근거들

1. MRI의 의사소통이론

MRI집단은 의사소통과 체계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나는 증상에 초점을 맞춘 단기치료접근법이다. 치료의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제시하고 있는 불평을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Shoham et al., 1995).

MRI 집단에 따르면, 가족의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족의 시도에 의해 오히려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MRI 집단은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강조하고 일반적인 시각에서 모든 행동은 사회체계 내에서 더 폭넓게 진행되는 의사소통의 교류 가운데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Duncan et al., 1992). MRI 집단은 인간은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발달시키는 것으로 본다. 첫째, 어려움을 잘못 다루는 것이다. 둘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패와 똑같은 문제해결방식의 지속적인 적용이다(Watzlawick et al., 1974). MRI모델은 ‘문제’란 오랫동안 그 문제를 변화시키려고 계속해 온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한 문제행동들이 지속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사람들이 그 문제행동들을 변화시키려고 행하여 왔던 방법, 즉 사람들의 ‘시도된 해결’에 있다고 본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감소시키려고 시도해 온 해결책이 종종 문제를 유지시키거나 혹은 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까지 한다(Goldenberg & Goldenberg, 2000). 따라서 치료자의 일차적인 임무는 새로운 또는 다른 행동을 기존의 행동과 대체하거나, 본래의 문제행동을 ‘하찮은 문제’로 재평가하는 것에 의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지금까지 시도해 온 해결책을 소개하는 것이다(Weakland, 1993). 또한 문제를 유지시켜 왔던 차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MRI 모델에서는 가족들에게 상식과는 반대되는 일들을 하게 하거나 혹은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한다(Nichols, & Schwartz, 2001).

Ⅲ. 연구 질문, 방법 및 분석

1. 연구 질문

첫째, 딸의 정신분열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딸의 정신분열증 증상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대상 및 상담기간

가족은 아버지(68), 어머니(66), 클라이언트(38), 첫째 남동생(36), 그리고 둘째 남동생(34)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별상담과 가족상담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는데, 1회는 클라이언트와 아버지, 2회는 클라이언트, 3-4회는 어머니, 5회는 첫째 남동생, 6회는 둘째 남동생,

7회는 클라이언트와 어머니, 8회는 클라이언트와 아버지, 9회는 클라이언트와 둘째 동생, 10회는 부모와 첫째 남동생, 11회는 첫째 남동생과 둘째 남동생, 12회는 클라이언트 상담을 하였다. 치료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5개월 동안 총 12회기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3.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회부터 12회기까지 나타나고 있는 반복되는 개념들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의 방식과 전문가 집단에 의한 삼각화(triangulation)를 실시하였다. 개념들의 지속적인 비교의 방식은 1회부터 12회기까지 진행되는 상담 과정 속에서 반복되는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개념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Patton(2002)에 따르면, 삼각화(triangulation)에는 데이터의 삼각화, 조사자의 삼각화, 이론의 삼각화 그리고 방법론적인 삼각화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데이터의 삼각화 방법으로서, 상담의 축어록과 치료자가 상담을 하면서 기록했던 메모, 그리고 치료과정에서 애매모호했던 상담 부분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이후에 상담 축어록에 관하여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타진하는 방식을 취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단일사례연구로써 가족상담 축어록 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담자의 정신분열증 증상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과 가족치료로 인하여 내담자의 정신분열증상을 사라지게 한 요인들을 찾기 위하여 질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다양한 질적인 연구방법들 중 연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단일사례연구의 방식을 사용하며, 상담축어록과 상담 시에 기록된 메모를 원자료로 하여 개방코딩의 과정을 통해 연구 목적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다.

IV. 상담내용 분석

1. 클라이언트의 정신분열증에 관한 증상과 문제

- 1) 환청
- 2) 환시
- 3) 환각
- 4) 클라이언트의 문제

T: 저를 찾아오신 주된 이유는 뭐예요?

C: 제가요. 분명히 약은 제가 끊지 않고 먹을 수 있는데요. 중간에 막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약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클라이언트: 1회)

2. 클라이언트의 정신분열증에 영향을 미친 요인

- 1) 클라이언트의 재수와 삼수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 2) 클라이언트와 아버지의 관계 및 의사소통 방식
 - (1) 클라이언트와 아버지의 관계
 - (2) 클라이언트와 아버지의 의사소통 방식
- 3) 클라이언트와 어머니의 관계 및 의사소통 방식
 - (1) 클라이언트와 어머니의 관계
 - ① 무섭고 구타하는 엄마
 - ② 겁나는 모녀 대화방식
 - (2) 클라이언트와 어머니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 ① 지시적인 엄마
 - ② 엄마의 표정에 민감하게 반응함
 - ③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한 공부
 - ④ 어머니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 ⑤ 클라이언트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 ⑥ 대화가 안 되는 클라이언트와 어머니 관계
 - ⑦ 클라이언트와 어머니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 ⑧ 물질적인 것으로만 부모의 사랑을 느낀 클라이언트
- 4) 클라이언트와 아버지와의 관계

- 5) 클라이언트와 첫째 남동생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과 관계 및 춘화사건
 - (1)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과 관계
 - (2) 춘화사건
- 6) 클라이언트와 둘째 남동생과의 의사소통 방식과 관계
- 7) 아버지와 큰아들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과 관계
- 8) 어렸을 때 강간과 성폭행
- 9) 부족한 공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모와의 소원한 관계
- 10) 할머니와 어머니의 비교와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 11) 대화할 상대자가 없음
- 12)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함

3. 클라이언트의 정신분열증 증상이 사라짐과 변화

- 1) 클라이언트의 정신분열증 증상이 사라짐
- 2) 클라이언트의 변화

4. 클라이언트의 정신분열증 증상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

- 1) 어머니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인식
- 2) 어머니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변화
 - (1) 어머니에게 말을 안 함
 - (2) 어머니에게 말대꾸를 안 함
 - (3) 솔직하고 기능적인 의사표현과 자신감 및 덜 민감해짐
 - ① 솔직하고 기능적인 의사표현
 - ② 자신감
 - ③ 덜 민감해짐
- 3) 클라이언트와 어머니 간의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 4) 클라이언트와 아버지 간의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 5) 클라이언트와 첫째 남동생 간의 변하는 의사소통 방식과 인식변화
 - (1)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 (2) 첫째 남동생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인식변화
 - (3) 첫째 남동생과의 관계회복을 희망

- 6) 클라이언트와 둘째 남동생 간의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 7) 아버지와 첫째 남동생 간의 솔직한 의사소통 방식
- 8) 지지적인 남자선배
- 9) 클라이언트 남자선배와 첫째 동생과의 대화
- 10) 치료자와 관계로 인하여 마음이 편안해짐
- 11) 다른 사람들과의 친화적인 관계

V. 결 론

본 연구에서 가족치료로 인하여 클라이언트의 어머니가 좀 더 긍정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어머니의 의사소통방식의 변화에는 클라이언트의 변화된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기여를 하게 되었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아버지와의 관계개선이 또한 클라이언트의 회복에 영향을 주었다. 내담자의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둘째 남동생이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다. 한편, 첫째 남동생은 치료자와 개별상담 그리고 치료자, 둘째 동생과의 3자 상담은 하였으나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인 대면은 거부하여 가족관계에서의 변화에 제한적인 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와 첫째 남동생과의 충돌은 훨씬 줄었다. 결론적으로 클라이언트는 가족 간에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정신분열증적인 증상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참 고 문 헌

- 박인철 역(1995). *변화*. 서울: 동문선.
- Duncan, B. L., Solovey, A. D., & Rusk, G. S. (1992). *Changing the rules: A client-directed approach to therap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Goldenberg, I., & Goldenberg, H. (2000). *Family therapy: An overview* (5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Nichols, M. P., & Schwartz, R. C. (2001).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4th). Boston: Allyn and Bacon.
- Schlanger, K., & Anger-Diaz, B. (1999). The brief therapy approach of the Palo Alto Group. In D. M. Lawson., & F. F. Prevatt. *Casebook in family*

- therapy* (pp. 146-168). New York: Brooks/Cole.
- Shoham, V., Rohrbaugh, M., & Patterson, J. (1995). Problem-and solutions-focused couple Therapies: The MRI and Milwaukee models. In N. S. Jacobson., & A. S. Gurman (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pp. 142-16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Watzlawick, P., Weakland, J., & Fisch, R. (1974). *Change: problems formation and problem resolution*. New York: W. W. Norton.
- Weakland, J. H. (1993). Conversation-but what kind? In S. Gilligan., & R. Price (Eds.), *Therapeutic conversations* (pp. 136-145). New York : Norton.
- Weakland, J., Fisch, R., Watzlawick, P., & Bodin, A. M. (1974). Brief Therapy: Focused Problem Resolution. *Family Process*, *13*, 141-168.